

밀레, 국가대표 요리사 초빙 쿠킹 클래스 실시

- 국가대표 요리사 조우현 셰프 초빙 고객대상 밀레 쿠킹클래스 진행
- 고급 양념통 선물세트 및 피크닉 선물세트 등 선물 증정

독일 명품가전 밀레(밀레코리아 대표 안규문. www.miele.co.kr)는 오는 11일, 세계 1위 토마토 케첩 제조업체인 하인즈의 한국지사 한국하인즈(<http://www.heinz.co.kr>)와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요리팀장인 조우현 셰프를 초빙해 밀레 쿠킹클래스를 진행한다.

특히 이번 쿠킹클래스에 초빙된 조우현 셰프는 최근 태국에서 열린 '제 1회 아시아 컬리너리 컵 요리대회'에 참여해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문 요리사로 현재 한국 하인즈의 기술자문 위원이다.

3가지의 요리로 진행되는 쿠킹클래스에서는 하인즈 데미그라스 소스를 이용한 스테이크, 케첩을 이용한 떡볶이, 클래식 소스를 이용한 토마토 스파게티 등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 엄마들이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특별 요리들로 강좌를 준비했다.

또 이번 쿠킹클래스에 참석한 모든 고객에게는 밀레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 및 고급 양념통 선물세트와 케첩, 스위트 랠리쉬, 옐로우 머스타드 소스로 구성된 하인즈 피크닉 팩을 선물로 증정한다.

밀레코리아 윤일숙 마케팅팀장은 “밀레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매달 2~3회씩 쿠킹클래스 등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하인즈와 함께 쿠킹클래스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행사배경을 설명했다.

올해 창립 110주년 맞은 밀레는 1899년 밀레와 진칸 두 사람이 공동 설립한 가전회사로, 창업이래 109년 동안 밀레와 진칸 두 가문이 4대째 대를 이어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. ‘평균 제품 수명 20년’이라는 탁월한 내구성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가전제품의 벤츠나 BMW로 통하고 있다.

문의: 02)3451-9451~2, 홈페이지: www.miele.co.kr